

산업부, 모듈형 新통상협정 신규 추진 미래 글로벌 통상질서 선도 본격화

- 시장개방 제외, 공급망·그린경제·디지털 중심의 유연한 新통상협정 추진 논의 -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12.10(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모듈형 新통상협정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글로벌 통상질서와 협력 구조를 재설계하기 위한 新통상협정 추진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모듈형 통상협정은 최근 대외 통상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기존 시장개방 중심의 전통적 FTA만으로는 최근 부각되고 있는 공급망, 그린경제, 디지털·AI 전환 등 新통상이슈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상황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또한 자원과 성장잠재력은 크지만 시장개방에 민감한 신흥국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의 여건과 협력 수요를 보다 정밀하게 반영할 수 있는 맞춤형 통상협력 모델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판단도 더해졌다.

이에 산업부는 공급망, 핵심광물, 그린경제, 디지털 등 4대 新통상 분야를 중심으로 분야별 표준문안을 마련한 뒤, 추진 대상 국가별 특성과 수요에 따라 적용 분야 및 분야별 세부조항을 선택·조합할 수 있는 ‘모듈형 방식’의 新통상협정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업계, 전문가 등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모듈형 新통상협정은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미래형 통상규범의 국제표준을 우리 주도로 제시하기 위한 새로운 협력 모델”이라며, “국가별 여건과 기업의 수요에 맞춘 유연하고 신속한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통상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늘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와 전문가들은 모듈형 新통상협정이 기업이 실제로 직면한 위험요인과 수요를 긴밀하게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기존 FTA에 비해 시의성·유연성·신속성이 크게 강화된 협력 모델이라는 점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산업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토대로 모듈별 협력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고, 올해 말까지 표준문안을 정교하게 보완·확정할 계획이다. 동 표준문안을 토대로 내년 초 싱가포르 및 아세안과의 FTA 개선협상 등에 우선 적용하고 추후 대상 국가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담당 부서	자유무역협정정책관 인도태평양통상기획팀	책임자	팀 장	이은희 (02-2100-1370)
		담당자	사무관	신서현 (02-2100-1379)



1. 간담회 개요

- ☐ (일시) 2025.12.10.(수), 10:00~11:30
- ☐ (장소) 대한상의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8층 대회의실
- ☐ (참석) 통상교섭본부장(주재),
분야별 기업관계자·협회, 유관기관, 통상전문가 등 15명 내외
- ☐ (의제) ① 모듈형 新통상협정 추진방안
② 참석자 의견 청취

2. 세부 일정(안)

시 간	세부 내용	비 고
10:00~10:05 ('5)	· 모두 발언	통상교섭본부장
10:05~10:15 ('10)	· 모듈형 新통상협정 추진방안	산업부
10:15~11:25 ('70)	· 의견 청취	참석자
11:25~11:30 ('5)	· 모두 발언	통상교섭본부장

참고 2

모듈형 新통상협정 전문가 간담회 참석자

연번	성명	소속	직책
1	고상영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글로벌공급망안보실장
2	정경우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원활용연구본부장
3	홍지상	한국무역협회	동향분석실장
4	이택성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이사장
5	손지윤	네이버	정책총괄이사
6	윤희용	롯데정밀화학	케미컬사업부문장
7	이만규	신라정밀	이사
8	서종현	에스쓰리알	대표
9	안상전	에코아이	지속가능사업본부장
10	정서용	고려대학교	교수
11	현혜정	경희대학교	교수
12	박정준	강남대학교	교수
13	김세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14	황형준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15	손금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